

방송 자막 키우고 전화문자로 카탈로그 전달

시니어 마켓이 뜬다

50대 이상 시니어 맞춤 마케팅 인기

경제적 여유갖춰…시장 ‘블루슈머’ 부상
쇼핑 채널, 기존 자막 크기·노출시간 늘려
스마트폰보다 자동전화상담 서비스 강화



유통

경제적 여유가 있는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가 유통업계에서 ‘블루슈머’(Bluesumer·새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자)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들은 시니어 세대에 맞춘 전용 프로그램 제작이나 서비스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NS홈쇼핑은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브라보 투어 라이프’를 편성했다. 동선을 짧게하고 최적화된 스케줄 등 시니어를 위한 프리미엄 여행상품을 소개한다.

현대홈쇼핑은 매주 수요일 오전 6시에 시니어 고객 대상 프로그램 ‘얼리버드쇼’를 편성했다. 자막 크기를 기존 대비 5~10% 가량 키워 가독성을 높였고, 자막 노출 시간도 다른 프로



패션모델 강좌 수강자들이 모델로도 참여할 수 있는 AK플라자 분당점 시니어 패션쇼(왼쪽), 기존보다 큰 자막이 눈에 띄는 현대홈쇼핑 ‘얼리버드쇼’ 방송 화면. 경제



사진제공 AK플라자·현대홈쇼핑

그램에 비해 2~3초 늘렸다. 시니어 고객이 스마트폰보다 주로 자동상담전화(ARS)를 이용해 주문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ARS 가격 할인을 강화했다.

위메프는 전화 주문 서비스로 결제와 배송 안내까지 가능한 ‘텔레마트’를 내놓았다. 스마트폰에 앱 설치하고, 가격 검색, 가입, 결제 등 모바일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고객에게 좀 더 쉬운 쇼핑을 위해 기획했다. 전화 문자로 상품기획자가 추천하는 특가 상품 카탈로그를 매주 제공하며 전문 전화 상담원이 상품 선택

과 결제, 배송 안내를 돕는다.

백화점들도 시니어 대상 문화센터 강좌를 늘려 고객 유입에 힘쓰고 있다. AK플라자는 시니어 수강자가 모델로 참여할 수 있는 패션모델 강좌를 개설했고, 3월2일부터는 분당점에 시니어 스터디 클럽 ‘아름다운 인생학교 U3A_AK 분당’을 개설한다. 심리학, 인문학, SNS 소통, 부자학, 독서포럼, 스마트폰 90초 영화 만들기 등의 강좌로 구성했고, 수업 참여는 물론 때로는 강사가 될 수 있는 생방향 스터디 강좌로 진행한다.

백혜정 AK플라자 문화아카데미 팀장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니어 모두가 잠재적 고객”이라며 “항후 스터디 클럽 강좌 개설을 전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50대 이상 시니어들은 이제 안정된 생활력과 구매력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쇼핑 매를 견인하는 중요 소비층이다”며 “구매 빈도 및 고객 단가도 증가 추세에 있어 시니어를 겨냥한 프로모션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아차, 올 뉴 K3 공식 출시… 1590만~2220만원

사전계약 6000대…준중형 세단시장 흥풍

기아차는 준중형 세단 올 뉴 K3(사진)를 27일부터 정식 판매했다.

올 뉴 K3는 사전계약부터 반응이 뜨거웠다. 13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6000대의 계약대수를 기록했다. 소형 SUV의 인기에 밀려 준중형 세단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품성이 좋으면 얼마든지 히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번 올 뉴 K3는 2012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플래티넘 모델이다.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안전사양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량감지)를 전 트림 기본 적용했다. 또한



준중형 세단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갖추고도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고객 만족을

높였다. 4개 트림으로 운영되며 판매가격은 트렌디 1590만원, 럭셔리 1810만원, 프

레스티지 2030만원, 노블레스 2220만원이다.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 사양인 차로 이탈 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이 포함된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와 소비자 선호 편의사양으로 구성된 버튼시동 스마트키 시스템도 기존 대비 20만원 인하된 65만원, 35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운전 편의성을 높여주는 AI 기반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 ‘카카오 I(아이)’가 적용되는 UVO 내비게이션의 무료 이용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올 뉴 K3의 주요 매력 포인트는 새로운 파워트레인 적용을 통한 15.2km/L의 경차급 연비, 기존 모델 보다 커진 차체 크기(전장 80mm, 전폭 20mm, 전고 5mm 증가, 동급 최대 트렁크 용량502L(VDA기준) 등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무인양품, 플래그십 스토어로 신촌 상권 도전

매장 내 서점 커피숍 마련…체류시간 확대
지역민을 위한 무료임대 이벤트 공간 조성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무지)이 서울 신촌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다.

무지코리아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내 최대 규모인 5개 층, 1652㎡의 신촌 플래그십 스토어를 28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매장’이란 콘셉트로 매장 1층에 지역 정보를 공유하는 신촌 투고를 마련했고, 4층과 5층은 오픈무지와 다목적홀

로 인근 대학가 학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벤트 및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무상 임대할 예정이다. 또 고객 매장 체류시간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미니 서점 형태의 무지북스와 커피숍 커피스탠드도 마련했다. 책과 커피로 고객들이 매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나루카와 타쿠야 무지코리아 대표는 “무인양품은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며 “신촌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매장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사랑받는 매장이 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무인양품 서울 신촌점 외부 전경. 사진제공 무지코리아

하이트진로, 통합법인 후 최대 규모 신규채용

하이트진로가 올해 100명 규모의 신규채용을 진행한다. 2011년 통합법인 출범 후 최대 규모다. 하이트진로는 3월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영업, 생산·연구, 관리, 해외사업 등 전 부문에 걸쳐 채용한다. 하이트진로가 최대규모 신규 채용에 나선 이유는 청년채용 확대를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어 위축된 국내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재를 육성, 소주 세계화 등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채용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국내외 영업조직 중심으로 약 300여명 규모의 신규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하이트

진로 전직원 2936명의 10%를 넘는 규모다.

KGC, 정관장 멤버스 500만 명 돌파

KGC인삼공사가 운영하는 ‘정관장 멤버스’ 회원이 500만 명을 돌파했다. ‘정관장 멤버스’는 정관장 매장 또는 정관장몰에서 제품 구매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멤버십 서비스다. 2007년 첫 해에는 80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각종 프로모션 혜택 증가, 포인트 활용도 확대 등을 통해 혜택을 강화하면서 회원 수가 증가했다. KGC인삼공사는 ‘정관장 멤버스’ 500만 돌파를 기념하며 전국 정관장 매장에서 10만원 이상 제품 구매 시 5000포인트 추가 적립 혜택(1인 1회 한정)을 3월 15일까지 제공한다.

원성열 기자

편집 신하리 기자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7일

코스피지수	2456.14	↓	-1.51
코스닥지수	874.01	↓	-0.42
日 닛케이 지수	2만2389.86	↑	+236.23
中 상하이 종합	3292.07	↓	-37.51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26		0
환율 (원·달러)	1071.50	↓	-1.0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5986.33	↓	-204.76

오늘의 얼굴

황각규 부회장, 비상경영 첫 관문 통과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간 롯데그룹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황각규(사진) 롯데지주 대표이사(부회장)가 첫 고비를 무난히 넘겼다.

롯데지주는 2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롯데지알에스, 롯데상사,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흥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의 분할 및 흡수합병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75만개에 달하던 롯데그룹 순환출자고리가 완전히 해소됐고, 롯데지주 산하 계열사는 42개에서 51개로 늘었다. 이날 임시 주총은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된 이후 황각규 부회장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 맞는 관문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황 부회장은 이번 분할합병안 통과에 대해 “합병이 통과되면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의 거버넌스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분할합병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비즈 TALK TALK

- “한국GM, 우리가 강제할 권한 없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산은-GM 주주간계약서는 비밀유지조항이 있어 국회 지원이 필요해도 법률적 책임때문에 제출할 수 없고, 자신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3인도 직접 보고 받는게 불가능하다며)
- “관세 부가로 치러야할 대가가 생겨도 우리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것”(트럼프 美대통령,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회동해 철강, 알루미늄 산업 소생을 위해 관세가 필요하면 부과하겠다고)

데이터 경제

설 명절 선물세트,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특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설 명절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설 농축수산물 판매액은 1조40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4% 증가했다. 축산, 수산, 청과 등 신선식품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고, 가공식품도 전년 대비 매출 상승폭은 20%에 육박한다. 특히 가격대가 높아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됐던 한우 선물세트가 지난해보다 14.7% 증가했다.	

● 설 명절기간 농축산물 매출

	전년 설 대비 증가율
축산	16.4%
수산	15.3%
청과	14.1%
가공식품	19.6%
한우선물세트	14.7%
홍삼제품	10.6%

● 5만~10만원대 선물 18.7% 증가

● 온라인 쇼핑물 매출 67.4% 증가

● 전통시장 은누리상품권 사용 97% 증가